**삼성의 빅스비와 가전 제품 연결 사례, 전망**

**"2020년까지 삼성 全 IoT 기기에 AI 적용…빅스비 강화"**

삼성은 휴대폰 외 2018년형 TV·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 주요 가전제품에 ‘빅스비’를 적용했고 향후 오븐과 로봇청소기 등 다양한 제품군에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은 2017년 말 회사 모든 IoT 서비스용 클라우드를 ‘스마트싱스(SmartThings) 클라우드’로 통합·연동한데 이어, 올해는 ‘스마트싱스 앱’을 출시해 삼성의 모든 IoT 제품을 간편하게 연결·제어할 수 있도록 했으며, ‘빅스비’를 전사적으로 확대 적용하고 있다

또 2018년 하반기에 삼성 제품뿐만 아니라 전구, 센서 등 제3자 기기까지 연동하고 제어할 ‘스마트싱스 허브’를 국내 시장에 도입해 소비자들이 다양한 스마트 기기들을 연결하는데 편의성을 제공할 예정이다.

와이파이(Wi-fi), 지그비(ZigBee), 지웨이브(Z-Wave) 기반 기기 모두 연동 가능하다.

적용 예시

삼성은 2020년까지 모든 IoT 제품에 AI를 적용하는 한편 ‘빅스비'를 중심으로 언어·시각·데이터 등 차세대 핵심 AI 기술을 강화할 계획이다.

예컨대 “하이 빅스비, 나 집에 왔어”라고 말하면, 에어컨· 공기청정기·조명이 동시에 켜지고 작동 중이던 로봇청소기는 충전용 거치대로 복귀 한다. “굿나잇”이라고 말하는 경우에는 에어컨과 공기청정기가 수면 모드로 전환되고 TV는 꺼진다.

이 밖에 위치기반 기술 중 하나인 ‘지오펜스(Geofence)’를 활용해 집과 가까워졌을 때 에어컨을 미리 작동시킬지 사용자에게 확인하는 ‘웰컴쿨링(Welcome Cooling)’기능도 있다.

출처: (<https://zdnet.co.kr/view/?no=20180517091206&re=R_20181023095854>)

삼성은 IoT 플랫폼 ‘스마트싱스’와 음성인식 인공지능(AI) ‘빅스비’ 확대 적용을 통한 ‘멀티 IoT 허브’ 구축 전략에 속도를 낸다.

2020년 1월 24일 전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은 음성 명령시 이용자와 가장 가까운 전자제품이 먼저 반응토록 하는 ‘멀티 디바이스 웨이크업’ 기능을 향후 빅스비가 탑재된 가전제품 대부분에 적용할 계획이다.

삼성은 멀티 디바이스 웨이크업 기능을 탑재한 에어컨이나 TV 등을 내놓으며 멀티 IoT 허브를 본견화 했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헤이 빅스비, BTS 최신곡 틀어줘”라고 이야기하면 냉장고·에어컨·TV 중 이용자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기기가 명령어를 인지해 음악을 틀어주게 된다.

삼성은 올해 내놓는 벽걸이형 에어컨에 빅스비를 신규 탑재했으며 지난해 3월 글로벌 스피커 업체인 ‘소노즈’를 스마트싱스 생태계에 끌어들이는 등 향후 글로벌 가전·정보기술(IT) 업체와의 제휴로 IoT 생태계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TV나 냉장고 기능이 갈수록 고도화하면서 IoT 허브를 담당할 수 있는 기기도 늘어나고 있다.   
모든 기기가 온라인에 100% 연결돼 있지는 않기 때문에 3년여 뒤에는 IoT 허브가 여러 개가 될 전망이다.

TV나 에어컨 등에 신경처리망장치(NPU) 반도체를 탑재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가전기기가 복잡한 연산을 처리하는 ‘엣지컴퓨팅’ 시대의 도래로 멀티 IoT 허브 시대가 수년 내 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롱텀에볼루션(LTE) 대비 20배 이상 빠르고 10배 이상의 IoT 기기 연결이 가능한 5세대(5G) 상용화로 가정용 로봇 등 지금과는 다른 IoT 제품이 나타날 수도 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YXRQY6T0M>)